



##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설명담화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구문 특성\*

이 한 나\*\* · 윤 효 진\*\*\*

The Syntactic Ability of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etelling of Comparison and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Lee, Hanna\*\* · Yoon, Hyojin\*\*\*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yntactic ability of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etelling of comparison and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5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and 15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all of whom we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15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ll the children were asked to retell two expository discourses after listening to them with pictures. The total number of T-units as syntactic productivity, the number of morphemes per T-unit, and th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as syntactic complexity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he total number of T-units. However,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significantly fewer morphemes per T-unit and subordinate clauses as syntactic complexity than the two groups o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What is more, children were likelier to retell longer and more complex sentences about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when compared to the retelling of comparison expository discourses. **[Conclus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likely to make shorter and less complex sentences in expository discourses than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The types of expository discourses should be considered in languag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Key Words** :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Vocabulary delay, Syntax, Expository discourse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제 1저자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재활사

Speech Language Pathologist,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Presbyterian (Jesus) Medical Center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부교수(hyoon@chosun.ac.k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Chosun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정은 한 국가의 다수민족과 다른 민족,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교육부, 2006)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가구원은 109만 명이며(통계청, 2021),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전체 초등학교 중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0.32%였던 반면, 2018년에는 3.43%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19).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어휘를 포함한 의미지식, 추론, 문법 및 구문지식, 그리고 화용담화 측면에서 비다문화가정의 또래 아동보다 지연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김영태 & 오소정, 2013; 김화수, 김지채, 권수진, 2009; 배소영 & 김미배, 2010; 심수민, 2018; 황다정, 2019).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 많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은 이중언어를 습득하기보다는 한국어만 단일언어로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언어습득은 주양육자의 언어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주는 언어자극의 양과 질에 따라 어휘발달 정도가 달라진다(Hoff-Ginsberg, 1998). 만약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면, 충분한 언어자극을 주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은 언어자극이 제한된 결핍환경에 놓을 수밖에 없다(김영란 & 김영태, 2011; 최현욱 & 황보명, 2009).

학령전기 어휘나 구문지식의 느린 발달은 학령기에 고급 어휘를 습득하고 복잡한 문장 등을 다양한 담화형식에서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영향을 준다.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비다문화가정의 일반 발달하는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어휘의 양이 적고 문법 형태소 오류가 나타나거나 비교적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강문경, 2015; 김미진, 2012; 김효정, 2008). 장종윤, 정미란, 황민아(2014)의 연구에서는 수용어휘 및 구문이해발달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도 어휘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동음이의어나 정의하기와 같은 과제에서는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느린 언어발달은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인지적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혜령 & 이순형, 2009; 장세영 & 김라경, 2020).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일관적으

로 느리다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배승아(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5-9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 어휘능력을 평가하고, 수용 어휘능력이 보통인 아동과 수용 어휘능력이 낮은 아동 간에 표현 어휘와 구문 오류율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여부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용 어휘능력이 낮을수록 구문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 어휘능력이 보통인 아동은 구문 오류율에서 비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수행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여부보다는 어휘능력이 구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문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휘능력 또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들은 학령전기와 달리 이야기 학업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어휘와 길고 복잡한 구문을 포함한 고급화된 언어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시기 학령기아동의 언어발달을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구문능력이다(김민정, 2010; 임종아 & 황민아, 2009). 구문은 아장기에서 학령전기까지 급격하게 발달하며(Brown, 1973; Leadholm & Miller, 1992),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Loban, 1976; Nippold et al., 2005). 교과과정에 포함된 이야기, 설명, 설득 담화 등을 학습하는데 복잡한 구문구조의 사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임애리, 2003). 학령전기에는 MLU(Mean Length of Utterance)로 분석하여 구문산출능력을 살펴보았다면, 학령기에는 MLU 대신 길고 복잡해진 구문을 C-unit(Communication Unit)이나 T-unit(Termination Unit)으로 분석하여 구문산출능력을 살펴본다. C-unit은 불완전한 발화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반면, T-unit은 완전한 문장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구문특성을 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다(Scott & Strokes, 1995).

구문특성은 한 문장 수준부터 담화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령전기에는 한 문장 수준이나 대화, 이야기 담화에서 주로 구문산출을 살펴보았다면, 학령기에는 이야기뿐 아니라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설명, 설득 담화 등을 통해 구문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 7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과서 담화 비중을 살펴보면 이야기, 설명, 설득담화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정종성, 2010), 학년이 올라갈수록 설명담화의 비중이 증가한다. 특히, 학령기 구문산출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의 산출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Nippold et al., 2005; Scott & Strokes, 1995).

설명담화는 정보, 사건, 주제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로서, 담화 내에 포함된 정보가 비친숙하거나 많기 때문에 이야기담화보다는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담화종류이다. 또한 이야기담화는 이야기문법이라는 하나의 구조에 기반하는 반면, 설명담화는 절차적 지시, 어떤 사건이나 개념에 대한 비교대조, 인과적 관계나 문제해결 등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설명담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사실에 대한 개념을 논리적으로 재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처리과정이 필요하며(Nippold et al., 2007; Saenz & Fucera, 1982; Scott, 1994), 낮은 어휘의 빈도가 높고 복잡한 구문을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담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Francis & Kucera, 1982; Scott, 1994).

교과과정에 포함된 대표적인 설명담화는 수집,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등과 같은 구조를 가진 유형이며, 3학년부터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김정수, 2004),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문제해결 유형의 포함 빈도도 높아진다. 설명담화의 구조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령기 연구들은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명담화의 구조인식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비교대조를 원인결과 유형보다 더 잘 인식한다고 보았으며(Richagels, Lomax, & Sheard, 1987), 이해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를 더 잘 이해한다고 보고하였다(Ward-Loneragan, Liles & Anderson, 1998). 또한 비교적 단순한 나열의 수집 유형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문제해결 유형에서 구문의 복잡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ippold et al., 2007) 설명담화 구조인식능력이나 이해, 구문산출 등이 설명담화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령기 아동의 구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명담화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가정 여부와 어휘발달지연 여부가 구문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아동을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 3학년부터 교과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설명담화 유형인 비교대조와 원인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구문산출성을 살펴보는 총 T-unit의 수, 그리고 구문복잡성을 살펴보는 T-unit 당 형태소 수와 T-unit 당 종속절 수를 측정하여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발화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높은 발화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을 보고 설명담화를 들은 후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하는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발달아동(이하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으로, 각 집단 당 15명씩 총 4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초등 3-4학년 시기는 교과서에서 설명담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6)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선정기준은 1)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며, 2)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3) 한국어만 단일언어로 사용하는 아동으로 4) 한국판-비언어성 지능 검사-2(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 박혜원, 2014)에서 80점 이상에 속하며, 4) 주양육자로부터 감각과 인지 및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73%, 필리핀 13%, 중국 10%, 캄보디아가 3%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으로 나누기 위해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를 실시하였다. 수용 및 표현 어휘 능력이 모두 -1.5 SD 이하로 나온 아동을 어휘발달지연아동, -1 SD 이상인 아동을 일반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1)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며, 2) K-CTONI-2(박혜원, 2014)에서 80점 이상인 아동으로, 3) REVT(김영태 외, 2009)의 수용 및 표현 어휘 능력이 모두 -1 SD 이상에 속하며, 4) 주양육자로부터 감각과 인지 및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집단의 생활연령, 비언어성 지능, REVT 수용 및 표현 어휘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비언어성지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REVT의 수용 및 표현 어휘 점수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 집단이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N=15)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N=15)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N=15)	<i>p</i>
Age	109.87(7.34)	109.60(9.10)	109.33(7.74)	.98
K-CTONI-2 <sup>a</sup>	97.80(14.02)	103.47(15.05)	106.07(13.20)	.27
REVT-Receptive score <sup>b</sup>	81.47(8.46)	104.33(14.6)	108.00(16.04)	.00
REVT-Expressive score <sup>b</sup>	78.07(7.10)	98.87(11.47)	101.53(16.10)	.00

<sup>a</sup>=standard score, <sup>b</sup>=raw score; MCF: multicultural families; K-CTO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의 설명담화를 그림과 함께 들려준 후에 다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아동이 산출한 발화의 구문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파워포인트에 포함된 그림을 보며 녹음된 파일을 듣도록 하였다. 설명담화는 전문 아나운서에게 의뢰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파일과 그림은 파워포인트를 통해 제시하였다. 한 슬라이드에 그림 1개씩을 넣어 총 9개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는 그림과 관련된 설명담화 녹음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설명담화는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을 위한 교재인 ‘함께 읽고 말해요 (배소영 외, 2010)’에 포함된 설명담화로, 각 글을 초등 3-4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의 설명담화는 추석과 설날을 비교하는 내용이고, 원인결과 유형의 설명담화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다. 각 설명담화는 어휘, 문장의 길이 및 구문복잡성을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글에 포함된 어휘는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서 어휘의 친숙도가 1-3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권재일, 2009)’에서 초등 1-3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어휘들이 90%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설명담화의 문장길이는 22문장이며, 두 담화의 T-unit 당 평균 형태소 길이(Mean length of T-unit morpheme; MLT-m)는 비교대조가 20.36, 원인결과가 20.41이다.

설명담화의 주제, 어휘와 구문복잡성의 적절성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언어치료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언어병리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였다. 내용타당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비교대조 유형은 평균 4.55, 원인결과 유형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조용한 장소에서 아동과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연구 실시 전 대상자 선정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통해 정보를 받았으며, 이 설문지에는 어머니의 출신국, 아동의 출생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거주기간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K-CTONI-2(박혜원, 2014)와 REVT(김영태 외, 2009)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및 대상자 선정 검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아동에게 본 연구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함께 녹음된 설명담화를 들려주었으며, 그 후에 그림을 제공하고 이야기

를 다시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과제는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 4. 자료의 분석

아동이 산출한 발화는 녹음한 후 전사하여, 웹 기반 프로그램인 한국어 발화 분석(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KLA, 하승희 외, 2016)을 통해 구문을 분석하였다. KLA는 아동의 발화를 프로그램에 맞게 코딩하여 입력하면 어휘 및 구문 지표들을 자동적으로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특성을 보기 위해 총 T-unit의 수, T-unit 당 형태소 수, T-unit 당 종속절 수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명료하지 않은 발화나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간투사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unit은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 형태가 기본 단위이며, 종속절을 포함한 주절도 하나의 T-unit으로 분석하였다(김영태, 2014). T-unit 당 형태소 수는 총 형태소 수를 총 T-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T-unit 당 종속절 수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의 수를 더한 후 이를 총 T-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KLA에 입력하기 전 검사자가 전사 및 구문 코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자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인이 자료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T-unit의 수에 대한 일치율은 95.78%, T-unit 당 형태소 수 일치율은 95.41%, T-unit 당 종속절 수 일치율은 95.67%로 나타났다.

#### 5.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집단(다문화가정의 어휘 발달지연아동,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두 설명담화 유형(비교대조, 원인결과)에 따른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집단 간 요인으로 세 집단, 집단 내 요인으로 담화유형, 그리고 총 T-unit의 수, T-unit 당 형태소 수, T-unit 당 종속절 수를 종속변인으로 이요인 혼합 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은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총 T-unit의 수

세 집단(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간 두 설명담화에 나타난 총 T-unit 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12.00,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3.07,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4.27로 나타났으며, 원인결과 유형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10.80,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2.87,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3.53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에서 총 T-unit의 수가 많았으며,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가장 적은 T-unit을 산출하였으며,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이 가장 많은 T-unit을 산출하였다.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 따라 총 T-unit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요인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F=2.409, p=.102$ )과 설명담화 유형( $F=1.777, p=.190$ )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F=.293, p=.747$ ).

<Table 2> The total number of T-unit in three groups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compare-contrast	12.00(4.04)	13.07(3.77)	14.27(2.96)
cause-effect	10.80(3.59)	12.87(3.56)	13.53(3.74)

### 2.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형태소 수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 나타난 T-unit 당 형태소 수의 기술통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8.91,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9.85,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0.82로 나타났다. 원인결과 유형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10.22,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1.61,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2.42로 나타났다. 이는 총 T-unit 수와 유사한 결과로, 원인결과에서 더 많은 형태소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T-unit 당 가장 적은 형태소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형태소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F=7.076, p<.01$ )과 설명담화 유형

( $F=19.582, p<.001$ ) 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41, p=.869$ ).

Bonferroni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 지연아동이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설명담화 유형 간에는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T-unit 당 형태소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he number of morpheme per T-unit in three groups**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compare-contrast	8.91(2.18)	9.85(0.77)	10.82(1.68)
cause-effect	10.22(2.32)	11.61(2.25)	12.42(1.79)

### 3.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종속절 수

세 집단과 두 설명담화 유형에 나타난 T-unit 당 종속절 수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24,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33,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31로 나타났다. 또한 원인결과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39,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68,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67로 나타났다.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종속절 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F=4.731, p<.05$ )과 설명담화 유형( $F=30.429, p<.001$ ) 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F=1.772, p=.182$ ).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보다 T-unit 당 종속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05$ ). 또한 두 설명담화 중 원인결과에서 아동들은 T-unit 당 종속절 수를 더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per T-unit in three groups**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compare-contrast	.24(.26)	.33(.15)	.31(.19)
cause-effect	.39(.32)	.68(.25)	.67(.33)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과과정에 본격적으로 설명담화가 나타나는 초등 3-4학년 시기에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설명담화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명담화는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으로 살펴보았으며, 구문산출성은 총 T-unit 수, 구문복잡성은 T-unit 당 형태소 수, 그리고 T-unit 당 종속절 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어휘발달지연 여부가 구문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구문산출성을 총 T-unit 수로 살펴본 결과,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어휘지연을 포함한 언어발달지연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구문산출이 적다고(Scott & Windsor, 2000) 보고한 것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방법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담화를 들려준 후 다시 말하도록 요구하였고, 아동이 다시 말할 때에도 그림자료를 보면서 말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기 과제는 자발적 산출하기 과제보다 더 많은 수의 T-unit을 산출할 수 있으며(Marleen & Catherine, 2013), 언어발달지연아동이 보이는 작업기억 혹은 기억용량의 처리용량부담은(윤혜련, 2005; Bishop & Adams, 1992) 그림을 다시 보면서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도록 하는 과제의 특성과 시각자료의 제공이 아동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양의 발화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각자료가 말이나 글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를 반복해주는 역할을 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Glenberg & Langston, 1992). 그림자료 제시여부에 따른 발화산출을 살펴본 강문경(2015)의 연구에서도 그림제시조건에서 아동이 더 많은 발화를

산출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비교적 많은 발화를 산출하면서 다른 일반아동 집단과 비슷하게 산출한 것은 언어발달장애아동은 그림을 보면서 큰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림에 나타난 일종의 지엽적인 설명을 빈번하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아, 2009; Merritt & Liles, 1987)는 연구결과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일반아동 집단은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과 비슷하게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을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어휘발달지연아동은 다시 말하기에서 설명담화의 큰 주제와는 관련이 없고 아동에게 들려주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발화를 제외하고 모든 발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어휘발달지연아동이 산출한 관련 없는 내용도 모두 분석을 하였고, 이는 전체 T-unit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일반아동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은 한국어를 단일언어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중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은 구문산출성에서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박미단, 2009; 정은희, 2004).

설명담화 유형 간에도 총 T-unit의 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소희, 2018). 문장의 수는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많이 산출되었다. 비교대조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다른 이어진 문장의 산출이 많아 T-unit의 수가 증가한 반면, 원인결과에서는 문장의 수는 많았지만 종속절을 포함한 문장의 산출이 많아 실제 T-unit 수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두 담화 유형 간에 비슷한 총 T-unit 수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문복잡성은 T-unit 당 형태소 수와 T-unit 당 종속절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살펴보면,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가장 적은 수의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산출하였으며,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 집단, 그리고 두 일반아동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구문산출성과 달리 구문복잡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휘발달지연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법형태소를 사용하여 길고 복잡한 복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이미림, 2014; Scott & Windsor, 2000). 즉, 산출한 문장의 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각 문장에 포함된 형태소 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지연아동으로 집단을 선정하였지만 어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발달에서도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언어발달장애아동은 일반 발달하는 아동에 비해 문법형태소의 산출 및 오류빈도가 높다

는 것이 주요 임상적 지표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의 낮은 형태소 수는 예측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휘발달지연아동은 문법형태소 오류도 보였는데(예: 여름이가), 이는 어휘나 개념 등이 친숙하지 않고, 복잡한 구문구조가 포함된 설명담화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 간에는 T-unit 당 형태소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문화가정의 여부는 구문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배승아, 2012; 황소진, 2010).

두 설명담화 유형 간 T-unit 당 형태소 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조 유형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유의하게 높은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명담화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구문복잡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김소희, 2018; 이미림, 2014; Nippold et al., 2014). 예를 들면, 원인결과에서는 ‘학교를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동차나 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빙하가 녹는데요’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일련의 순서를 말하면서 종속절이 포함된 복잡한 복문으로 산출했다면 비교대조 유형에서는 ‘설날은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요’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이어진 문장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T-unit 당 형태소 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T-unit 당 종속절 수도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unit 당 종속절 수는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 모두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던 지표보다 가장 발달적 차이를 예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장애아동은 일반 발달하는 아동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종속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정아, 2009; Scott & Windsor, 2000), 이러한 특성이 본 연구의 어휘발달집단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두 일반아동 집단보다 T-unit 당 종속절 수를 더 적게 산출한 것은 복문 이해와 산출 모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어휘를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 발달에서 지연을 보이는 아동들은 복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또래 일반아동보다 더 늦게 복문을 산출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복잡한 구문 중 하나인 내포문을 포함한 복문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김영태, 2014; 김화수, 장만순, 김성수, 2011), 이러한 특성이 종속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산출하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발달장애아동은 설명담화와 같이 담화구조가 복잡할수록 이해와 산출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인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Oakhill & Yuill, 1996; Williams, Hall & Lauer, 2004), 설명담화의 형식이 복잡한 구문산출 특성을 살펴보기에 예민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에 산출한 발화를 살펴보면 발달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두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설날에는 납작하게 썬 가래떡과 고기를 넣어서 떡국을 끓이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처럼 부사절과 관형절 등의 다양한 종속절이 나타났다. 반면 어휘발달지연아동은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요’ 혹은 ‘그 다음에 만 들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연날리기를 합니다’ 와 같이 단문이나 이어진 문장으로 산출하거나 언어적 비유창성이 나타난 발화들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은 총 T-unit의 수나 T-unit 당 형태소 수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종속절과 같이 복잡한 구문발달에 어려움이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박미단, 2009; 정은희, 2004; 조아라, 2011).

설명담화 유형 간에는 T-unit 당 종속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빈번하게 종속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질 밀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높은 질밀도가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소희, 2018). 원인결과는 전후라는 시간적 사건을 통해 인과적 관련성을 보여주거나 앞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기 위해 종속절이 포함된 문장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면, 비교대조 유형은 둘 이상의 주제나 개념에 대해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기술하는 특성 때문에 나열식의 이어진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설명담화 유형의 특성이 아동이 산출한 종속절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설명담화를 듣고 다시 말하는 과제에서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과 비교하여 문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복잡도 측면에서는 덜 복잡한 구문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은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담화의 유형은 복잡한 구문을 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원인결과 유형에서 좀 더 복잡한 구문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예민한 담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평가와 중재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어휘능력으로만 통제하였는데 이후에는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통해 언어발달장애아동을 선정하고 언어발달장애아동의 구문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에 다양한 설명담화 유형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여러 설명담화 유형 간 어휘나 구문 산출 특성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n, H. R. & Yi, S. H. (2009). Academic achievement :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1-10.  
[안혜령, 이순형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1), 1-10.]
- Bishop, D. V. M. & Adams, C. (1992). Comprehension problem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Literal and inferential mean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119-129.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H. W., & Hwang, B. M. (2009). A effect of mother' 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 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315-329.  
[최현욱, 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Francis, W., & Kucera, H. (1982). *Frequency of analysis of English usage: Lexicon and grammar*. Newton, MA: Allyn & Bacon.
- Glenberg, A. M., & Langston, W. E. (1992). Comprehension of illustrated text: Pictures help to build mental model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1*(2), 129-151.
- Ha, S. H., Seol, A. Y., So, J. M., & Pae, S. Y. (2016). Speech and language development patterns of Korean two-year-old children from analysis of spontaneous utteranc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1*(1), 47-59.  
[하승희, 설아영, 소정민, 배소영 (2016). 자발화 분석을 통한 만 2세 한국아동의 말 언어 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21*(1), 47-59.]
- Hoff-Ginsberg, E. (1998). The relation of birth or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children' s language experience and language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9*, 603-630.
- Hwang, D. J., & Hwang, M. N., & Lim, J. A. (2019). Drawing Inferences from the Presuppositions of Sentences in 2nd and 3r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1), 33-56.  
[황다정, 황민아, 임종아 (2019). 초등학교 2-3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제 의미 추론.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1), 33-56.]
- Hwang, S. J. (2010). *A Comparison of the grammatical expressive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on Expository discourse*. Master thesis, Dankuk University.  
[황소진 (2010).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의 구문표현능력 비교: 설명담화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ang, J. Y., Jeong, M. R., & Hwang, M. A. (2014). Comprehending and defining homonyms in school-ag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9*(1), 71-79.  
[장종윤, 정미란, 황민아 (2014).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동음이의어 이해와 정의하기. *언어청각장애연구, 19*(1), 71-79.]
- Jang, S. Y., & Kim, R. K. (2020). Literature analysis on language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1), 33-56.  
[장세영, 김라경 (2020).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의 언어중재관련 문헌분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1), 33-56.]
- Joe, A. R. (2011). Comparative study of the story comprehension and retelling ability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in relation to their receptive vocabulary level.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조아라 (2011). 한국어 어휘 능력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및 이해 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ng, E. H. (2004).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Disorder, 13*(3), 33-52.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Jung, J. S. (2010). Examination of text genre as a main factor for reading difficulties: Content analysis of elementary reading textbooks.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9*(2), 245-257.  
[정종성 (2010). 읽기장애 발생의 주요 변인으로서의 텍스트 장르에 대한 분석: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9*(2), 245-257.]
- Kang, M. K. (2015). Characteristics of the retelling of expository discourses b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a picture presentation condition: Focused on mazes. Master thesis, Dankuk University.  
[강문경 (2015). 그림 제시조건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담화 다시말하기 특성: Mazes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H. J. (2008).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language environment. Master thesis, Public Health Hallym University.  
[김효정 (2008). 다문화언어환경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능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H. S., Kim, J. C., & Kwon, S. J. (2009).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in generative naming for school-ag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school-aged children of ordinary famil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331-360.  
[김화수, 김지채, 권수진 (2009).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31-360.]
- Kim, J. A. (2009). Narrative discourse abilities of adolescents with language disorder : Story

- generation and story retelling.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김정아 (2009). 언어발달장애 청소년의 과제유형에 따른 이야기 담화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J. S. (2004). The study of teaching program by each steps of explanatory speaking. Master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김정수 (2004). 설명하는 말하기의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K. H. (2003). *Vocabulary of Korean Education by Grade*. Seoul: Pagijong.  
[김광혜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 Kim, M. J. (2010). The Noun development of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 Focusing on the noun scale analysis. Master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김민정 (2010).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명사 발달: 명사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M. J. (2012). Characteristics of expository writing of school-age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 thesis, Dankuk University.  
[김미진 (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글 쓰기 특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H. (2018).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in retelling of the expository discourse types in second, fourth, and sixth grade children.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김소희 (2018).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의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다시 말하기의 구문 특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W. S., Jang, M. S., & Kim, S. S. (2011). Syntactic processing ability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1*(4), 93-111.  
[김화수, 장만순, 김성수 (2011).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통사처리능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93-111.]
- Kim, Y. R., & Kim, Y. T. (2011). Linguistic performance of korean children from low SES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Disorder, 20*(3), 73-88.  
[김영란, 김영태 (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73-88.]
- Kim, Y. T. (2014). *Assessment and treatment of language disordered children 2nd edition*. Seoul: Hakjisa.  
[김영태 (2014).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2판**. 서울: 학지사.]
- Kim, Y. T., Hong, G. H., & Kim, K. H.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Kim, Y. T., & Oh, S. J. (2013). The Lexical development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or deaf Par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Disorder, 22*(4), 17-91

- [김영태, 오소정 (2013). 언어결핍환경 아동의 어휘 발달 특성: 다문화가정과 청각장애부모 가정아동을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2(4), 17-19.]
- Korean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2/13/2019). Korean Social Trends 2019. Retrived on November, 23, 2021, from <http://sri.kostat.go.kr/>
-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 동향 2019. <http://sri.kostat.go.kr/>에서 2021. 11. 23 인출]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7/29/2021). Retrived on November, 20, 2021, from <https://kosis.kr/index/index.do>
- [통계청 (2021).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1. 11. 20 인출]
- Kwon, J. I. (2009). *Research of the vocabulary of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권재일 (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Leadholm, B. J., & Miller, J. F. (1992).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wisconsin guide. madison: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Lee, M. L. (2014). Characteristics of the type of spoken expository discour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y.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이미림 (2014).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언어학습장애아동의 말하기 특성.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m, J. A., & Hwang, M. A. (2009). The characteristics of mazes in story retelling by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4(1), 96-108.
- [임중아, 황민아 (2009).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나타난 아동의 mazes 특성. *언어청각장애 연구*, 14(1), 96-108.]
- Loban, W. (1976). Language development: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Research Report No. 18).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Marleen, F. W., & Catherine, A. M. (2013). Spoken expository discours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telling versus generation. *Clinical linguistics & Phonetics*, 1-15.
- Merritt, D. D., & Liler, B. Z. (1987). Story grammar ability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language disorder: Story generation, story retelling, and story comprehens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0v 539-553.
- Ministry of Education (n.d.). Retrived on September, 25, 2021, from the <https://www.moe.go.kr/main.do?s=moe>
- [교육부 (2006). <http://www.moe.go.kr>에서 2021. 09. 25 인출]
-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n.d.). Retrived on September, 29, 2021, from the <http://ncic.re.kr/mobile.index2.do>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6). <http://ncic.go.kr>에서 2021. 10. 29 인출]
- Nippold, M. A., Frantz-Kaspar, M. W., Cramond, P. M., Kirk, C., Hayward-Mayhew, C., & Mackinnon, M. (2014). Conversational and narrative speaking in adolescents: Examining the use of complex syntax.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7, 876-886.

- Nippold, M. A., Hesketh, L. J., Duthie, J. K., & Mansfield, T. C. (2005). Conversational versus expository discourse a study of syntactic development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 1049-1064.
- Nippold, M. A., Mansfield, T. C., & Billow, J. L., (2007). Peer conflict explanations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complex syntax.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6*, 179-188.
- Oakhill, J., & Yuill, N. (1996). Higher order factors in comprehension disability processes and remediation. In C. Cornoldi & J. Oakhill (Eds.),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pp. 69-9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e, S. A. (2012). Characteristics of errors in expressive vocabulary and gramma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in relation to their receptive vocabulary.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배승아 (2012). 수용어휘 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표현어휘 및 구문 오류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e, S. Y., Jung, K. H., Kim, M. B., & Jin, Y. S. (2010). *Read and speak togeth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배소영, 정경희, 김미배, 진연선 (2010). **함께 읽고 말해요**. 여성가족부.]
- Pae, S. Y., & Kim, M. B. (2010). Language Based Reading Abilities of Korean School-Aged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5*, 146-156.  
[배소영, 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 146-156.]
- Park, H. W. (2014). *Korean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K-CTONI-2)*. Seoul: Mindpress.  
[박혜원 (2014).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2(K-CTONI-2)**. 서울: 마인드프레스.]
- Park, M. D. (2009).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preschool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Master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박미단 (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Richagels, D. J., McGee, L. M., Lomax, R. G., & Sheard, C. (1987). Awareness of four text structures: Effects on recall of expository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22*, 177-196.
- Saenz, L. M., & Fuchs, L. S. (2002). Examining the reading difficulty of secondar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Expository versus narrative text.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7*(1), 31-41.
- Scott, C. M. (1994). A discourse continuum for school-age students: Impact of modality and genre. In G. Wallach & K. Butler (Eds.),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in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210-252. New York: Merrill.
- Scott, C. M., & Stokes, S. L. (1995). Measures of syntax in school age children and adolescent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6*, 309-319.

- Scott, C. M., & Windsor, J. (2000). General language performance measures in spoken and written narrative and expository discourse of school age children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324-339.
- Sim, S. M. (2018). Syntactic Awareness Skills of 2nd and 3r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 thesis, Dankuk University.  
[심수민 (2018). 초등학교 2-3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문인식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Ward-Lonergan, J. M., Liles, B. z., & Anderson, A. M. (1998).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call abilities in adolescents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and without disabilities for social studies lectur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2*(3), 213-223.
- Williams, J. P., Hall, K. M., & Lauer, K. D. (2004). Teaching expository text structure to young at-risk learners: Building the basics of comprehension instruction. *Exceptionality, 12*(3), 129-144.
- Yim, A. L. (2003). Grammatical Development of Expressive Language of Pre-teen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임애리 (2003). 10대 초반 학생의 표현 언어에서 나타난 구문 발달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oon, H. R. (2005). Story comprehension and retelling abilities in school-Age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윤혜련 (2005). ‘다시 말하기’를 통해 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이야기 이해 및 산출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문 초록>

##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설명담화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구문 특성

이 한 나 · 윤 효 진

**[목적]** 본 연구는 초등 3-4학년의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설명담화 유형에 나타난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 3-4학년의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집단별로 15명씩 선정하였다.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의 설명담화를 사용하여 그림 보며 다시 말하기 과제를 구문산출을 유도하였으며, 구문산출성은 총 T-unit의 수, 구문복잡성은 T-unit 당 형태소 수와 T-unit 당 종속절 수로 살펴보았다.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도 구문의 산출성에서는 두 일반아동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복잡성 측면에서는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두 일반아동 집단보다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담화의 구조가 더 복잡한 원인결과 구조에서 비교대조보다 더 복잡한 구문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어휘발달지연의 여부에 따라 구문산출성과 복잡성이 달라지며, 다문화가정의 여부가 구문산출성과 복잡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설명담화유형에 따라 산출하는 구문의 양이나 복잡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평가 및 교육/중재에서도 다양한 설명담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의 아동, 어휘발달지연, 구문, 설명담화

논문 접수(Received): 2021. 11. 04. / 심사 시작(Examined): 2021. 11. 04. / 게재 확정(Accepted): 2021. 12. 06.